

# 豊臣政權期에 있어서 자연재해와 대외관계

—地震과 水害를 중심으로—

김문자\*

mjakim@smu.ac.kr

## Contents

1. 들어가며
2. 도요토미 정권 초기(1585~1594)의 수해·지진 발생 규모 및 피해
3. 도요토미 정권 후기(1595~1598)의 수해·지진 발생 규모 및 피해
4. 수해와 지진발생 전후의 국내외 상황
5. 나오며

## Abstract

本論文は1990年代以後、日本の歴史学で‘環境史’の研究が活発に進行している中で、‘戦争と自然災害’ ‘戦争と環境’というテーマで豊臣政權期に発生した自然災害(地震と水害)が対外関係、特に朝鮮侵略(壬辰丁酉倭亂)とどのような関わりを持っているのかについて考察した。

その結果、豊臣政權の初期に現れた水害と地震が対内外的な政治状況に影響を及ぼしたことはあまりみられない。特に当時の人々の間で洪水、風害という災害は振り返って発生するものとして認識したので、ある程度こうした災害に対応し、また防止することに努めたのである。地震の場合も‘天正地震’と呼ばれる大地震があったが、発生した地域は、三河と東海、北陸、美濃、尾張、伊勢、近江など政治権力の中心地であった京都、大坂地域とは距離があったので政治的に大きな影響を与えなかった。

一方、豊臣政權の後期に発生した水害と地震の被害は初期とは異なり、京都という政治のシンボルで中央政治の中心地域で発生したので、この災害の影響は大きかった。特に伏見で起きた地震は秀吉に政治的な危機意識を一層感じさせたのである。なぜなら当時の人々は大地震が発生すれば兵乱が起きる可能性が高くなり、また為政者の権力構造に変化がおこりやすいことと地震発生を理解したからである。

本論文では豊臣政權期の水害と地震発生という自然災害が‘秀次事件’と‘秀吉の病死風文’、‘日明講和交渉の破綻’という対内外的な状況と絡み合っって人心の動揺や反乱の兆し、社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일본근세사 전공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32-A00025).

会混乱などを吹き起こしたことに注目した。こうした状況で秀吉が今まで総動員して敢行してきた侵略戦争が水泡に帰し、国内の情勢さえも不安な状態になると、自分の率いる政權を維持するため、またほかの突破口をさがすため朝鮮を再び攻撃した点を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

**Key Words** : 環境史, 自然災害, 地震, 水害, 秀吉, 京都, 日明講和交渉  
(환경사, 자연재해, 지진, 수해, 히데요시, 경도, 일명강화교섭)

## 1. 들어가며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자연과 환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생태민속학’ ‘환경민속학’이 제창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자연재해와 인간사회의 역사 관계를 묻는 재해사와 개발사 측면에서 환경사를 연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즉 90년대 후반 일본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사회를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자연과학계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환경문제가 논의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점차 사회과학계의 분야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sup>

그 결과 일본역사학 관련여의 여러 학회에서 ‘환경사’를 테마로 하는 심포지움과 특집이 개최되었고, 환경사는 역사학자들의 주요한 연구 테마로 자리잡게 되었다.<sup>2)</sup> 즉 環境歴史學・環境考古學・環境民俗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sup>3)</sup>

이러한 동향과 관련지어 본 연구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 ‘전쟁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도요토미 정권기에 발생한 자연재해(지진과 수해)와 조선침략(정유

1) 80년대 초 일본에서 ‘환경사’가 소개될 당시 가장 먼저 이 단어에 반응을 보인 것은 사회학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지역 사회학을 축으로 하는 방법론을 ‘환경사’로 보면서 환경문제를 역사·문화적인 맥락 위에서 위치 지움으로써 ‘지역의 전통을 생활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려 하였다. 宮滝交二(2005) 『今なぜ環境史・災害史の視点か-日本古代史の立場から』 『新しい歴史学のために』 259号, 京都民科歴史部会, p.32. 橋本政良編著(2005) 『環境歴史学の研究』 岩田書院, pp.5-53.

2) 民衆史研究(1999) 「特輯, 環境史への視座」 55 民衆史研究(2001) 「特輯, 環境史の可能性」 61 「特輯, 環境史の可能性」 『歴史評論』 650, 2004 「特輯 環境史の現在」 『新しい歴史学のために』 259, 2005.

3) 高木徳郎(2002) 「日本中世史研究と環境史」 『歴史評論』 630호 佐野静代(2006) 「日本における環境史研究の展開とその課題-生業研究と景観研究を中心に-」 『史林』 89-5, pp.105-111.

재란)이라는 대외관계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 도요토미 정권기에 일어난 조선침략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히데요시가 제 2차 전쟁을 일으켰던 정유재란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자연재해 현상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도요토미 정권기에 발생하였던 대표적인 지진은 1586년(天正14) 기나이(畿内)에서 東海・北陸에 걸친 M7.6의 대지진, 1589년(天正17) 츠루가(駿河)・도우토미(遠江) 지역에서 발생한 M6.7의 대지진, 1598년(文祿元) 시모후사(下總) 지역의 M6.7의 지진, 1596년(文祿5) 분고(豊後)와 교토(京都) 후시미(伏見) 지역에 발생한 M7.0의 지진 등이 있다.

水害의 경우는 1585년(天正13) 6월 京都지역과 8월 미노(美濃)지역의 전대미문의 홍수, 1586년(天正14) 6월 세츠(攝津)지역과 1588년(天正16) 5월 京都의 홍수, 1595년(文祿4) 五畿内와 7월 京都 부근의 수해를 들 수 있다. 1596년(文祿5)에는 지진의 피해도 컸지만 관동, 시나노(信濃), 가이(甲斐), 등지에 대홍수가 백년 만에 발생하기도 하였다.<sup>5)</sup> 1596년 후시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초, 이 지역에 또 다시 홍수가 발생하자 국내의 인심이 많이 동요하였다. 정권에 대한 혼란과 불안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조선과 전쟁을 치루기 전인 정권 초기만 해도 히데요시의 정치중심은 오사카(大阪)였다. 히데요시는 1592년 8월부터 京都 후시미에 성 축조 명령을 내리고 1594년에 완공되자, 8월에 입성하여 말년 정치를 이곳에서 행해왔다. 이후 도요토미 정권말기 정치 실험장의 심벌이며 중앙 정치의 중심은 후시미성이 중심으로 한 京都 지역이었다. 이처럼 후시미성은 히데요시 정치활동의 핵심지역이었다. 따라서 바로 이곳에 지진과 수해가 발생한 점을 단순한 재해로 보아 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4) 津野倫明(2009) 「壬辰倭乱の原因・目的に関する日本の諸学説」, 『日本学』 28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pp.39-54; 이계황(2010)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한일관계연구논집 15, 경인문화사, pp.37-84.

5) 風損(大風), 水損(霖雨, 洪水), 旱損(旱魃), 虫損(蝗害), 饑饉, 凶作, 疫病에 관한 일본 재해 관련 재해사 연표는 藤本久志編(2007) 『日本中世気象災害史年表稿-10~16世紀の風水, 旱, 虫害, 凶作, 饑饉, 疫病の情報』, 高志書院을 참조하였음.

또한 이 시기는 조선과 전쟁한지 3-4년이 지났고 초전의 승리를 제외하고는 커다란 성과가 없는 가운데 강화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sup>6)</sup> 이러한 국내의 여건에서 히데요시는 조선의 재침략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요토미 정권기에 발생한 지진과 수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1596년 전후로 발생한 수해·지진 피해가 제 2차 조선침략(정유재란)이라는 대외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sup>7)</sup>

## 2. 도요토미 정권 초기(1585~1594)의 수해·지진 발생 규모 및 피해

히데요시는 혼노지(本能寺)의 變으로 1582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살해된 뒤, 그의 후계자로서 전국 통일을 추진하였다. 히데요시가 조선과 명을 공격하겠다는 구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585년으로 확인되고 있다.<sup>8)</sup> 그는 1587년에 규슈를 정복한 뒤 쓰시마의 소(宗)씨를 통해 조선의 복종을 요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후 1590년 오다와라(小田原)성을 함락한 후 오슈(奥州)를 평정하였다. 마침내 전국을 통일하자 곧바로 조선 침략 준비를 하였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도요토미의 정권 초기를 그가 대외구상을 표명한 1585년부터 京都의 후시미성에 입성한 1594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후 1594년부터 히데요시가 죽은 1598년까지를 도요토미 정권 후기로 구분하였다.

6) 일본은 벽제관 전투에서 명에게 승리는 했으나 행주산성에서 조선에 패한 후에는 대륙의 寒氣, 병량부족, 조선군·의병들의 저항 등에 의해서 軍의 戰意는 점차로 상실되었고, 군내에서의 厭戰분위기와 撤収願望도 증만하였다. 출병 시 1만 1천 명이었던 유키나가의 兵員數는 6천여 명으로 감소하였고,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경우에도 1만 명이었던 수가 5,490명으로 격감하였다. 전반적인 일본병사의 소모율은 약 40퍼센트에 가까웠다. 따라서 조선의 이러한 사정을 보고 받은 히데요시는 전쟁 발발 이후부터 유키나가의 제의를 받아들여 강화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문자(2006) 「히데요시는 일본국왕 임명을 진짜로 거부했는가」,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근세2, 경인문화사, p.78.

7) 도요토미 정권기에 있었던 외국과의 교류는 조선 뿐 아니라 중국(명), 포르투갈, 류큐, 타이완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라는 측면에서 대외관계를 고찰하고 있으므로 당시 일본과 전쟁을 하였던 유일한 국가인 조선에 한정하여 대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8) 岩沢恩彦(1984) 「秀吉の唐入りに関する文書」, 『豊臣政権の研究』, 戦国大名論集 18, 吉川弘文館, pp.146-151, (첫 출전 『일본역사』 162호, 1962).

이 시기에 발생한 수해 및 지진상황을 고찰하기에 앞서 전국시대, 중세 말기부터 근세까지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한다.

중세 후기가 되면 재해를 입는 것이 일상화 될 정도로 재해는 빈번히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재해에 대처하려는 사회집단이 생겨나고,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회편성 형태도 크게 변했다. 이시기에는 특히 飢饉과 疫病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세기 후반~16세기 초에 걸쳐 기후가 寒冷化하고 생활조건이 악화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동시에 전국적인 규모의 戰亂·一揆가 발생하였고, 風水害와 冷害·旱害·蟲害 등에 의한 不作· 흉작으로 기근이 만성화되면서 영양실조로부터 저항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疫病이 만연해 갔다.<sup>9)</sup> 즉 중세후기의 대표적인 재해는 기근과 역병이 서로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근세의 두드러진 재해는 중세와 달리 지진과 噴火, 쓰나미가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推古 7년(599)의 지진에서 江戸時代 후기(1866)까지 有感지진기록은 4만 5,061건이 있다. 그 가운데 13세기까지의 총계는 1,908건(0.4%), 이후 17세기까지는 3,014건(0.7%), 에도시대에 속하는 나머지 기록은 4만 139건(89%)에 달한다.<sup>10)</sup> 이 기록을 근거로 한다면 지진의 발생은 근세시기에 두드러진 현상이라 하겠다. 물론 이 자료는 본 논문에서 취급하려는 시기와는 차이가 있으나, 중세 후기와 달리 근세초기부터 지진에 의한 자연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해인 홍수의 경우도 근세에 반복해서 발생하는 재해현상이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지진과는 다른 자연재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홍수는 지진에 의해서 독이 決壊되거나 화산재의 유입에 의해 하천의 바닥(河床)이 상승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와 동시에 일본의 하천은 산지가 대개 급경사를 이루며 해안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길이가 짧고 급류 부분이 많다. 따라서 침식·운반 작용이 활발하여, 계절에 따른 수량의 변동이 커서 봄철 눈 녹는 시기나 장마 시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는 홍수의 위험이 컸다. 다시 말해서 수해(홍수)는 일본의 지형적인 특성과

9) 峰岸純夫(2001) 「中世災害・戦乱の社会史」 吉川弘文館. 佐々木潤之介(2000) 『日本中世後期・近世初期における飢饉と戦争の研究』 科学研究費研究成果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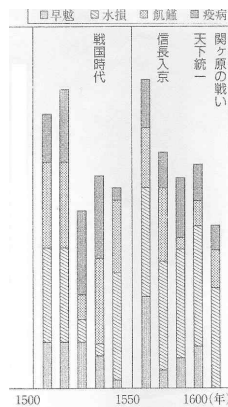
10) 北原系子(2006) 『日本災害史』 吉川弘文館、p.161.

함께 반복해서 발생하는 재해로, 중세에서는 별다른 위기의식 없이 사회가 이에 대응해 나갔던 것이다.<sup>11)</sup>

이처럼 지진과 수해는 같은 자연재해의 범주 안에 속하면서도 지진이 被災體驗이 계승되기 어려운 재해인 것에 비해, 홍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의미에서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진과 수해는 天變災異의 현상이나, ‘災’는 한발·홍수·기근·황해·화재·병란 등의 재해를 의미한다. 한편 ‘異’는 日食·地震·寒暑의 변절과 동식물 등의 異常을 포함한 怪異·變異 현상을 나타낸다. 연차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홍수는 지진이나 분화와 달리 천벌 또는 신이 행한 재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sup>12)</sup> 이처럼 수해와 지진은 양상과 그 반응을 달리 하는 자연재해였다. 그러나 재해를 입은 당시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회복하려고 했었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자연재해로 취급하고자 한다.

아래의 도표는 전국시대에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정권을 거쳐 세키가하라 전투까지 발생했던 재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sup>13)</sup>

<표 1> 중세 재해 발생 상황



11) 위의 책 pp.128-137. 예를 들어 장원영주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과 용수시설 등의 관리와 修築체제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특히 도시수해와 관련해서 항상 범람하였던 京都의 가모가와 (鴨川)지역에는 防鴨河使·防葛野河使를 설치하여 거둬들이는 홍수에 대처하려 하였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12) 김문자(2007) 「豊臣政権 末期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상황-文祿 5년(1596)의 지진발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99, pp.189-193.

13) 藤本久志(2001) 「飢饉と戦争の戦国を行く」 朝日選書, pp.90-91.

위의 표는 旱魃·水損·饑饉·疫病을 중심으로 중세 재해발생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분명한 것은 疫病과 기근의 발생이 전국시대와 비교해 볼 때 1600년대 들어오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 수해의 피해는 이전과 비교해서 변함없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중세 후기 이후의 재해발생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도요토미 정권 초기의 수해 및 지진발생 상황, 이와 상관된 국내외정세도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여기서는 京都를 중심으로 한 畿内 지역(大和·山城·攝津·河内·和泉)에 발생하였던 재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즉 京都·후시미 지역은 오사카에 버금가는 정치도시로 다양한 이벤트와 ‘보이기 위한 정치’를 보여주었던 주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정치적인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도요토미 정권 초기 히데요시의 정치 중심은 오사카 지역이었으나, 1594년에 京都 후시미성이 완공되자 말년의 정치를 이곳에서 행했다.<sup>15)</sup> 이처럼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京都를 중심으로 하는 畿内 지역은 정치의 중심지였으므로 이 지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도요토미 정권초기 기내를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과 수해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수해의 경우

연도	월	일	지역	내용
天正13(1585년)	6	17		天象에 變異가 있음/諸社에게 기도를 행하도록 함
	6	20	京都	大水出/大風, 洪水
	6	21	近畿	이전부터 大雨下
	7	5		地震/諸社에게 기도를 행하도록 함
	7	11	大和	大雨
	11	29	諸国	近國의 濱海水溢, 익사자 다수, 12일 동안 진동(지진)

14) 仁木宏(1997) 「都市京都と秀吉」 『日本史研究』 420호, p.93.

15) 『続史料集成-多聞院日記』 8월 20일 조.(竹内理三編, 1978), 「水谷信義文書」. 히데요시가 隱居城으로 착공하려 했던 후시미성은 히데요시의 아들인 히데요리가 태어나자 단순한 은거성이 아닌 聚락큐데이(聚楽城)에 있는 히데즈구를 견제하기 위한 공간이 되었다. 후시미성을 웅장한 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는 강화교섭을 하러 온 명나라의 책봉사를 알현하기 위한 점도 있위한 히데즈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커지면서 후시미성의 주위에 다른 여러 다이묘들의 거처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결국 諸大名들은 関白히데즈구의 聚락큐데이의 주변 거처가 아닌 후시미성 부근(城下)에 유력 대명들이 앞 다투어 자신들의 거처(屋敷)를 만들었던 것이다.

天正14(1586년)	3	5	大和	밤중부터 비가 내리더니 홍수가 남. 대지진후 태풍.
	5	30	大坂	大電鳴, 雨頻下
	6	3	大坂	大雨下, 同三日夜 猶以大雨
	6	4	京都	諸社寺에게 비를 멈추는 祈禱를 행하도록 함
	6	4	大坂	아침부터 홍수
	6	4, 5, 6	摂津	東南西 洪水
	8	1	橿津	風雨
	8	2	橿津	雨不止, 終夜風吹
	8	11	大和	地震了, 昨夜, 大雨風
天正15(1587년)	2	4	京都	入夜, 暴雨風, 電鳴
	3	21	京都	又大雨降出也, 夜大風吹出也
	4	5, 14, 15	京都	大雨降, 雨猶不止
	5	23, 24	京都	大雨, 洪水出
	5	25	京都	洪水
	6	19, 21, 28, 29	京都	大雨降, 風雨
	7	1, 2	京都	夜大風雨, 洪水
	7	2	山城	大風 大雨
	7	3	京都, 大和	洪水
	7	4	京畿	大雨, 是日, 神祇大副吉田兼見에게 止雨의 禱祈를 명함
7	15	大和	洪水	
天正16(1588년)	0	0	諸国	諸国, 疫病流行
	2	8	大和	木津川....洪水
	4	19	京都	大雨
	4	20	京都	洪水, 大井川, 賀茂川絶渡口
	5	23	京都	疫疾流布로 인해 大神宮神主에게 이것이 물러나도록 기도하게 함
	5	3, 8	大和	綸旨로 除疫病祈禱를 올림
天正17(1589년)	6	12	大和	夜初夜過 一夜大雨也. 大雨, 大洪水也
	6	13, 14,	大和	大雨
	6	15	大和	洪水
天正18(1590년)	7	0	橿津	淀川洪水
	7	17	大和	過夜一夜, 大風, 大雨
	7	29	山城	過夜一夜, 大風, 大雨
	8	3	京都	夜入, 大風, 大雨
	8	17	大和	過夜又大雨, 事社敷降, 可為水損



天正19(1591년)	3	4, 6	大和	大雨降了
	5	10	大和	大雨降下
	7	29	京都	大雨・電電甚
天正20/文祿元(1592)	4	22	大和	大雨下了, 近日, 持續雨下, 夏様
	5	10	京都	大雨
	5	27	大和	大雨
	7	6, 7	大和	過夜, 又大雨了,
	8	29	大和	26, 7日, 大雨降, 洪水出
文祿2(1593)	0	0	諸国	諸国, 惡疫流行
	3	7	京都	惡風吹
	4	14	京都	地震
	4	28	京都	午過大雨
	4	29	大和, 京都	大風雨, 雨天
	5	26	京都	雨天, 洪水
	5	27	大和, 京都	大風雨, 雨天
	6	12	大和, 京都	大風雨, 雨天
	8	12	京都	大雨. 今曉, 雷電大雨, 昼大雨, 又雷鳴
	9	9	京都	雨天, 大風損屏以下
	12	25	諸国	諸国, 惡疫流行
	12	25	天下	天下, 惡疫流行, 殘者一人無, 上一人부터 下民, 皆病, 不思儀事共也
文祿3(1594)	0	0	京都	疫病流行
	12	0	京都	疾疫流行

\*\* 본 도표는 '史料綜覽 12, 13과 藤木久志編(2007) '日本中世氣象災害史年表稿-10~16世紀の風水, 旱, 虫害, 凶作, 饑饉, 疫病の情報' 高志書院, pp.391-40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고딕 부분은 이해가 컸던 지역의 표시임.

<표 2-1> 지진의 경우

년도	월	일	지역 및 내용
天正13(1585년)			霧島山震動噴火
	6	18	伊勢지역 強震
	7	5	三河지역 強震-백년만의 지진
	10	5	三河지역 地震
	10	15	日向지역 強震
	11	29	東海, 北陸, 美濃, 尾張, 江川. 伊勢, 近江 등에 強震/天正地震'. 12일간 餘震/다음해 2월까지 지진이 계속 됨

天正14(1586년)	1	3, 4, 8	京都地震
	2	8	京都地震
	4	9	京都地震
	6	23, 24	京都地震
天正15(1587년)	2	22	京都地震
	2	26	奈良地震
	4	17	霧島山噴火
	4	26	奈良地震
	5	8	奈良地震
	5	10	仙台地震
	7	2	三河国地震
	7	19	三河国地震
	10	18	奈良地震
			阿蘇山噴火
天正16(1588년)	2	18	奈良地震
	3	12	霧島山噴火, 強震
	윤5	21	三河国地震
	9	10	京都地震
	11	9	三河国強震
	11	20	三河国強震
	12	12	三河国強震
天正17(1589년)	2	5	駿河, 遠國, 三河大地震
	3	3	奈良地震
	5	28	三河国地震
	6	23	三河国強震
天正18(1590년)	1	10	奈良強震, 京都, 三河地震
	1	18	奈良地震
	2	16	關東諸國地震 安房, 上總, 下總, 常陸지역 피해가 큼
	2	18	상동지역 홍수
	春		信州, 淺間山噴火
	7	7	奈良強震
	10	2	武蔵国地震
	10	16	武蔵国地震
	10	21	武蔵国強震
	11	7, 15, 22	武蔵国地震

天正19(1591년)	1	8	武蔵国地震
	3	7	武蔵国地震
	3	29	武蔵国地震
	春		信州, 浅間山噴火
	5	7, 15	武蔵国地震
	8	26	武蔵国地震
	9	25	武蔵国地震
	10	14	信州, 浅間山噴火
	10	24	武蔵国地震
	10	25	三河国強震
	11	6, 8, 21	武蔵国地震
天正20/文禄元(1592년)			浅間山噴火
	8	5	奈良地震
	9	3	下総上代地震, 江戸地域 強震
文禄2(1593년)	9	5	下総上代地震, 江戸地域 強震
	1	8	下総上代地震
	1	12	下総上代地震
	1	24	京都地震
	4	14	京都地震
	5	6	下総上代地震
	6	18	下総上代地震
	8	3	下総上代地震
	9	16	奈良強震
	9	25	京都地震
12	9	下総上代地震	
文禄3(1594년)	9		京都地震

\*\* 본 도표는 文部省震災予防評議會編(1975) '増訂 大日本地震史料' 1권, 鳴鳳社, pp.552-65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고딕 부분은 피해가 컸던 지역의 표시임.

위의 표에서 수해를 보면 거의 매년 5, 6, 7월 京都와 大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1585년(天正13) 6월과 1588년(天正16) 5월 京都 홍수는 그 피해가 상당하였다. 특히 1585년 8월 미노(美濃)지역의 홍수는 경도 지역은 아니었지만, 논이 손실되고 郡内の 다수 가옥과 사람이 유실되고 사상자가 발생하여 수해피해가 상당하였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라 칭한 1586년(天正14) 6월 세츠(攝津)지역의 대홍수와 1588년(天正16) 5월 京都의 홍수 발생은 天正期の 대표적인 수해라 할 수 있다. 1590년대에 들어가면 많은 비(大雨)는 내렸어도 홍수발

생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1588년과 1593년에는 여러 지역에서 역병이 유행하였다. 이듬해에도 경도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역병이 번져 上下民이 모두 불가사의하게 생각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sup>16)</sup> 이러한 홍수나 역병이 발생하면 諸社寺에게 비를 멈추게 하는 祈禱 행사를 하거나 大神宮 神主에게 이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히데요시의 경우에는 興福寺에 자주 기도를 부탁하였고, 천황가도 綸旨로 除疫病 祈禱를 올리도록 명하고 있다. 즉 히데요시 시기만 해도 災害觀은 神佛에 대한 신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위정자가 책임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군신을 총동원해서 신불에게 災異消伏을 기도하는 것으로 정치비판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疫病을 피하려는 기도가 朝廷·權門·막부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으로 행해져 왔고, 음양사나 승려·신관들이 주로 이러한 일을 맡았던 것이다.<sup>17)</sup>

히데요시는 1592년 8월 大和 지역의 홍수와 9월 下總 上代 지역에 6.7 強震이 江戸 地域을 엄습하자 天正이라는 연호 대신에 文祿으로 改元한다.<sup>18)</sup> 1587년부터 발생한 아소산의 분화와 2년 전에 있었던 關東의 安房·上總·下總·常陸 지역의 지진 피해도 개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원을 하는 것은 지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 해결로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한편 도요토미 정권초기의 지진규모나 피해와 관련해서 히데요시가 關白으

16) 時慶卿記, 文祿2년 12월 25일 조.

17) 에도시대에 들어오면 홍수와 같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치수공사가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노동력과 자재조달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이 맡아서 하고 재해시 급하게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막부나 번이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大名은 대규모 치수 공사의 경우에는 관여하다가 에도 중기가 되면 자금원조만 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즉 이러한 치수공사가 지역민의 참여와 막부, 번의 자금원조, 기술원조, 현장감독으로 활발히 진행되었고, 홍수라는 수해 피해는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河川改修와 水防活動에 주력하였다. 수해에 대해 종교적인 권위에 상당히 의존하였던 도요토미 정권과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北原系子(2006) 『日本災害史』 吉川弘文館, p.152, p.194; 繁田信一(2004) 『陰陽師の貴族社会』 吉川弘文館, pp.1-7; 林淳(2005) 『近世陰陽道の研究』 吉川弘文館, pp.72-90.

18) 12월 8일 改元을 하였는데 이러한 수해와 지진 발생 등 지진 및 자연재해에 의해서 개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承平(938), 天延(973), 貞元(976), 永長(1096), 文治(1185), 慶長(1596), 天保(1830), 安政(1854) 등 역사상 8차례나 있었다.

로 임명된 1585년에는 소위 ‘天正地震’이라 불리던 강진이 三河지역과 東海·北陸·美濃·尾張·江川·伊勢·近江 등지에서 일어났다. 三河 지역의 지진은 백년 만에 발생하였고, 東海·北陸 지역의 지진은 12일 간이나 餘震이 있는 가운데 다음해 2월까지도 계속 되었다고 한다. 특히 美濃·尾張·江川 지역의 인명피해는 상당하였다고 한다.<sup>19)</sup> 7월 三河 지역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霧島山이 震動하여 분화하는 사태도 발생하였고, 그 이전부터 天象에 이변이 있어서 諸社에 기도를 올릴 정도였다.<sup>20)</sup> 히데요시는 이런 상황에서 7월에 관백에 취임하였던 것이다.

1586~1588년에는 京都와 奈良·三河 지역에 잦은 지진이 발생하였으나 크게 주목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1589년 駿河·遠國에 M6.7의 강진이 일어나 다수의 희생자가 생겼고, 1590년에는 關東지역의 安房·上總·下總·常陸에 지진과 홍수가 동시에 발생하여 피해가 상당하였다.<sup>21)</sup> 이 시기는 히데요시가 2월에 東征(관동지역 정벌)을 계획하여 8월에 호오쥬씨(北條)를 항복시켰고, 오슈(奥州)까지 정복했던 때이다.

조선에서 전쟁 중인 1592년 9월에도 下總을 중심으로 한 江戶 지역에 M6.7 強震이 발생하였다.<sup>22)</sup> 이곳은 정치의 중심지였던 畿内와는 거리가 있었으나 4월 14일 이 시기에 京都 근처에서 약간의 지진이 발생하고 5, 8, 9월에 홍수와 태풍이 몰아쳤다. 사태가 악화되자 히데요시는 전국에 있는 음양사를 징벌하여 이들을 통해 지진의 피해를 저지하려 했다.<sup>23)</sup>

이상에서 도요토미 초기 정권에 나타난 수해와 지진 현상을 보면 자연재해가

19) 『梵舜日記』 天正13년 29일 조.

20)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재해를 위정자의 부덕에 근거한 天譴으로 보는 한편, 神과 靈의 승양과 노여움으로 보려는 관념이 강해, 빈번하게 神社에 奉幣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護國經典을 誦誦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려 하였다. 일본의 전 근대시기에서는 災異가 발생하면 천황이 책임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군신을 총동원해서 신불에게 災異 消伏을 기도하는 것으로 정치비판을 피하려 했다. 김문자(2007) 『豊臣政權 末期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상황- 文祿 5년(1596)의 지진발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99, p.191.

21) 『增補家関忠日記』 天正17년 2월 5일조, 『八州古戦録』 天正18년 庚寅 2월 16일조(文部省震災予防評議會編, 『增訂 大日本地震史料』 재인용).

22) 『增補家関忠日記』 文祿원년 9월 3일조, (文部省震災予防評議會編, 『增訂 大日本地震史料』 재인용).

23) 『時慶卿記』 文祿2년 12월 29일조.

대외적인 정치상황에 미친 직접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의 자연재해는 지진보다 수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전술한 것처럼 홍수·풍해 등은 예측이 가능하고 반복해서 발생하는 재해였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수리시설과 祈禱 등을 통해 대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진의 경우에도 초기정권 8년 동안 ‘天正地震’이라 불릴 정도의 대지진은 3번 정도 있었으나 발생한 지역이 三河 지역과 東海·北陸·美濃·尾張·伊勢·近江 등지로 정치권력의 중심지였던 京都·大坂 지역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히데요시 정권 초기에 발생한 지진은 수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외에 미친 영향은 적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자연재해는 주군의 인덕·역량과 관련되어 인간계의 질서도 통치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히데요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정권초기의 자연재해가 위협적이거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이라도 통치문제와 정권유지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도요토미 정권의 후기인 1595~1598년에 발생하였던 수해와 지진 상황 및 피해 규모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대내외 사정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3. 도요토미 정권 후기(1595~1598)의 수해·지진 발생 규모 및 피해

히데요시는 1592년 8월부터 후시미성 축조 명령을 내려 1594년 8월에 입성하여 말년의 정치를 이곳에서 행했다. 후시미를 포함한 교토는 천재와 戰災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대의 平安京, 院政期の 白河御所, 중세 말의 上京·下京의 惣町, 근세초 히데요시에 의한 再造를 거쳐 분산·축소·확대라는 변천을 겪은 장소였다.<sup>24)</sup>

정권 후기에 있었던 수해 및 지진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4) 西山昭仁(2006)『寛文2年(1662)近江・若狭地震における京都での被害と震災対応』『京都歴史災害研究』5, p.39.

<표 3> 수해의 경우

연도	월	일	지역	내용
文祿4(1595)	0	0	畿内	五畿内, 大洪水
	6	3	京都	京都, 大雷雨
	6	4	京都	洪水
	6	7	京都	京都洪水, 大雨
	6	9	橿津	此邊, 大水, 8所(大和田, 島頭, 馬伏, 岸和田, 東日夜, 新田, 諸福, 安田)堤切, 無正體候....
	8	10	京都, 江戸	大雨, 洪水
文祿5/慶長元年(1596)	5	9	東海	尾濃, 洪水
	5	11	山城	雨降, 洪水, 伏見普請, 返路難叶云云
	6	0	畿内	上方大雨降
	6	4	大和	長擬, 室生入, 大雨, 洪水之間, 川渡不可成, 難決之事也
	6	12	京都	泥土降, 又氷毛
	6	19	諸国	信(濃), 甲(斐), 關東洪水, 百年以來大洪水云云. 知行損亡, 不知數
	6	20	山城	終日, 大雨降, 聯洪水
	6	27	京畿	京畿, 白砂降
	閏7	13	京都	畿内大震, 余塵數個月涉
	7	15	畿内	京畿, 白砂降
	7	17		三宝院義演을 시켜서 震災를 없애도록 함
	8	5	京都	京畿, 大風雨, 洪水
	8	6	京都	午刻過, 風雨裂外也, 洪水, 及半夜出也, 所所水溺死云云
8	10	京畿	如仰今度之大地震, 大風雨打続, 無正體候. 就其, 堤御普請之儀, 無御由斷之由尤存候	
10	27	改元	天邊地妖	
慶長2(1597)	1	4, 11	京都	地震
	2	13, 27	京都	地震小動
	3	1	信濃	淺間山噴火
	4	26, 28	京都	地震
	5	5, 12	京都	雨降, 洪水
	5	23, 26	京都	地震
	7	1	京都	毛雨
	7	10, 16	京都	地震
	8	6, 15, 25	京都	地震
	8	14	京都	大雨
	10	3	京都	地震
	12	22, 26	京都	地震

慶長3(1598)	1	4, 6	京都	地震
	1	11, 14, 28	京都	地震
	2	3	京都	地震
	3	26	山城	風雨, 洪水
	4	8	信濃	淺間山噴火
	5	8	京都	雨降....洪水以外, 領田流了
	5	9, 15, 16, 17	山城	大雨, 洪水
	6	19	山城	雨降, 洪水
	6	20	山城	雨降, 大風
	7	21	山城	大雨降
	7	27	諸国	夜半부터 大風, 洪水, 五穀損亡, 不可勝計
	7	27	京都, 山城	雨降, 入夜, 大風吹, 京都所町屋破損了
	7	28	京都	大風
	8	16	山城	大雨, 洪水

\*\* 본 도표는 '史料綜覽 12, 13과 藤木久志編(2007) '日本中世氣象災害史年表稿-10~16世紀の風水, 旱, 虫害, 凶作, 饑饉, 疫病の情報', 高志書院, pp.391-40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고딕 부분은 피해가 컸던 지역의 표시임.

<표 3-1> 지진의 경우

연도	월	일	지역 및 내용
文祿4(1595년)	1	4	京都약한 地震
	4	23	武藏国지역 馬毛가 내림
	10	21	三宅噴火
文祿5/慶長元(1596년)	3	3	紀伊国熊野에서 진흙이 내림
	4	4-8	淺間山噴火, 때때로 地震
	5	12	伊豆地震
	6	12	京都, 畿内 關東諸国에 흙과 毛가 내림
	6	27	재가 심하게 내림
	7	12	津輕強震. 이 지역에 毛가 내림
	7	26	淺間山噴火
	윤7	12	豊後大地震, 瓜生島沈下
	윤7	13	伏見大地震, 山城, 攝津, 和泉, 諸國大地震
	윤7	15	하늘에서 白毛, 괴이한 현상이 나타남
	윤 7		淺間山噴火, 灰가 近江, 京伏見까지 미침



慶長2(1597년)	1	4, 11	京都地震
	3	1	淺間山噴火, 많은 돌이 분출됨
	4	28	京都地震
	7	1	京都地震,泥뭍 毛가 내림
	8	6, 15	京都地震
	윤	8	津輕強震
	10	3	京都地震
	12	1	津輕強震
	12	26	京都地震
慶長3(1598년)			慶長3-5년까지 霧島噴火
	1	6	京都地震
	1	11, 14, 28,	京都地震
	2	3	京都地震
	4	8	淺間山噴火, 參詣者 800인 사망
	12	16	京都地震
	12		다음해까지 淺間山噴火, 砂礫 내림

\*\* 본 도표는 文部省震災予防評議會編(1975) '増訂 大日本地震史料, 1권, 鳴鳳社, pp.552-65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고딕부분은 지진의 피해가 큰 지역임.

우선 위 표를 통해 1595년 6월 京都를 비롯한 攝津 등 畿内 지역에 홍수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8월에 들어와서도 山城과 大和에 홍수가 자주 발생하였고, 다음해 5, 6월에도 山城과 畿内를 중심으로 한 諸國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信濃·甲斐·關東 지역은 百年以來의 大洪水로, 知行의 損亡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1596년에 들어와서는 후시미 지진 직후에 또 다시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컸던 것이다. 다음해 5, 8월에 홍수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비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6)</sup> 이러한 상황은 1598년에도 지속되어 5-8월에 걸쳐 홍수가 京都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도요토미 정권 후기에 발생한 지진은 1596년에 발생한 후시미 지진만 생각하기 쉬우나, 같은 해 있었던 豊後(분고) 지역을 비롯해서 이 시기에는 거의 전국에 걸쳐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특징이다. 豊後の 대지진은 후시미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일어났는데 瓜生島가 沈下될 정도였다.<sup>27)</sup>

25) 동경대학 사료편찬소(1971) 『大日本古記録, 言經卿記』 7, 岩波書店.

26) 『史料纂集 義演准后日記』 1-3(群書類從完成会), 慶長 2년 5월 5일/8월 14일.

27) 그 피해는 천 여 개의 가옥과 사망자가 800명 정도였으며, 사즈마까지도 여진이 미칠 정도

1596년 윤 7월 13일 새벽에 발생한 M7.0 후시미 지진의 피해지역은 京都 남부를 중심으로 후시미·교토·오사카·이즈미(和泉)·사카이(堺)·효고(兵庫) 등지까지 광범위하였다.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寺内町 주위에는 3백 명 정도가 죽었거나 수천 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28)</sup> 당시 천황이 정원으로 피난하였고, 죽은 자를 화장하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 점을 보아 그 피해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지진 발생 직후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간 것은 계속되는 여진이었다. 14일에 지진이 멈추지 않자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도로에서 기거하였고, 15일에도 여진으로 主上(천황)이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지내고 있었다. 여진은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되었다. 여기에 아사마야마의 噴火, 7~8월 土雨·石雨·毛雨의 變이 끊이지 않았다.<sup>30)</sup> 지진 후 후시미성 부근의 도시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난과 약탈이 빈발하였던 것이다.<sup>31)</sup>

도요토미 정권후기에 발생한 수해와 지진 피해는 초기와 비교해서 京都라는 정치 실험장의 심벌 즉 중앙 정치의 중심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재해가 미친 파장은 컸다. 그만큼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한층 더 느끼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병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위정자들 역시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변수로서

였다고 한다. 佐賀閑史, 제17편 地震と海嘯(文部省震災予防評議會編、増訂 大日本地震史料, 재인용).

28) 당시 교토의 인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1661년에는 니시진(西陣)의 機織織物을 중심으로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여 洛中 洛外를 합친 인구가 町方に 약 36만 명, 公家·武家·寺社 약 5만 명을 포함해서 41만 명의 대도시였다고 한다. 후시미 지역의 인구나 관련해서는 天和 3년(1683)에 약 25,000명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90여 년 전인 1596년경의 인구는 이에 준해서 생각해 보면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측할 수 있겠다. 下中邦彦編(1979) 『日本歴史地名大系 第 27卷 京都市地名』 平凡社, p.1201.

29) 『史料纂集 義演准后日記』 慶長윤 7월 13일조.

30) 『史料纂集 当代記』 2,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戊戌(6일).

31) 西山昭仁(1995) 『文祿5年の伏見地震直後の動静1—公家·寺社·朝廷を中心として』 『歴史地震』 11号, p.12. 예를 들어서 『言経卿記』에 의하면 「7월 15일에 지진이 발생하자 매일 혼간지의 寺内町에서는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풍문(雜說)이 떠돌아 다녔다. 여자와 아이들은 다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들 하였다. 밤에는 盜人에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寺内町에서 자는 일은 드물었다」고 전하고 있다. 김문자(2007) 「豊臣政権 末期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상황- 文祿 5년(1596)의 지진발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99, pp.202-204.

지진발생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2)</sup> 그러므로 지진현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로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에도 연관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당시의 국내 상황과 국외 사정 등을 검토하면서 자연재해와 대외관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 4. 수해와 지진발생 전후의 국내의 상황

정권말기에 전국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수해 피해도 적지 않자 국내에 혼란이 야기되었다. 즉 후시미 지진이 발생하기 1년 전에 일어났던 ‘히데츠구사건’<sup>33)</sup> 太閤 후시미축성의 대공사는 인심을 동요시켰다. 여진이 몇 달 켜이나 지속되고 건물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여 옥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선동적인 악선전이 유행하고 落首가 퍼져 정치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어갔던 것이다.

이 사건 직후의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히데요시는 관백 자리를 그대로 비워두고(闕官) 자신은 태정대신으로서 공가사회의 수좌에 앉았다. 또한 다이묘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법령인 ‘御掟’ ‘御掟追加’를 발표하였다.<sup>34)</sup> 즉 히데요시는 히데츠구를 할복시킨 다음에 宿老와 여러 대명을 대상으로 히데요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起請文前書を 제출하게 하였다. 조

32) 에도시대에 들어와 지진을 자연현상으로 보는 서양 사상이 소개됨으로써 ‘병란 조짐’과 ‘軍師諸王 모두가 망할 징조로 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33) 藤田恒春(2003) 『豊臣秀次の研究』 文献出版, pp.201-221 참조. 히데요리는 고야산(高野山)으로 추방당하고 자결하였다. 이때 히데츠구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의 추종자들까지 무참히도 희생되었다. 사건은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의 탄생과 히데츠구의 無用論에 의해서 빚어진 비극이었지만, 모반사건으로 취급되어 정치문제화 되었다. 히데요시가 ‘関白不相屈子細’가 국내뿐 아니라 조선에 출진하고 있는 여러 무장들에게도 동요되거나 허언이 나돌지 않게 주의할 기을이고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일본 국내에 남아 있던 여러 다이묘들이었다. 자신들도 언제 히데츠구와 같은 운명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동요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히데요시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보복하고 전부 살해하는 공포정치는 히데요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제2의 조선침략을 강행하는 도발도 주위에서는 막기 힘든 상태였다고 본다. 김문자(2007) 『豊臣政權 末期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상황—文祿 5년(1596)의 지진발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99, pp.206-207.

34) 『浅野家文書』 大日本古文書 265・266호, 三鬼清一郎(1994) 『御掟・御掟追加をめぐる』, 尾藤正英先生還暦記念会編 『日本近世史論叢上』 吉川弘文館.

선에 있는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등의 여러 대명들에게도 血起請文을 쓰게 하여 대명을 통제하고 장악하려 하였다.<sup>35)</sup> 이러한 히데요시의 여러 조치들은 히데즈구사건을 정권의 위기상황으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동요하거나 동조하는 세력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 만큼 이 사건이 미친 파장과 동요가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국내사정으로 히데요시의 病死 풍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즉 히데요시는 1597년 10월에 筋違에 의한 통증으로 며칠 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후부터 자주 발병하였다.<sup>36)</sup> 이러한 소식은 조선 측에도 降倭와 피로인 들을 통해 급속하게 전달되었다. 有病說은 病死說로 오보되기도 하였고,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무사들에게 동요를 가져다 주었다. 히데요시의 건강상태는 1598년 2월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후시미지진 발생 후 국내의 불안정한 정세,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외에도 대외적으로는 4년에 걸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日明講和交渉’이 1596년 6월에 들어와서 해결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지진발생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진으로 인해 국내 치안의 불안, 국내의 厭戰 분위기, 인심의 동요, 사회의 혼란, 지속적인 여진 등이 來日한 명 책봉사와 조선의 통신사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졌다.

결국 지진 발생이라는 자연재해는 히데즈구사건과 히데요시의 병사풍문, 교착상태에 빠진 日明講和交渉의 파탄이라는 대내외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대외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강행하는 遠因으로 작용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화제를 바꾸어서 히데요시는 천황의 ‘勅定’ ‘綸命’ ‘勸慮’에 의해서 또는 ‘천황의 뜻을 받든 武命’이라는 형식을 가지고서 전국을 정복하거나 조선의 침략을

35) 히데즈구의 실각과 미증유의 정변이라는 이 사건을 계기로 히데요시는 자신의 정권기반에 徳川家康・前田利家・上杉景勝・毛利輝元・宇喜多秀家 등을 두고 실무층에 前田玄以・曾田長盛・長束正家・石田三成 등의 奉公人들을 배치하는데 성공하였다. 藤田恒春(2003) 『豊臣秀次の研究』 文献出版, p.238-239.

36) 『鹿苑日録』 2권, 慶長2년 10월 27, 28, 29일 조. 김문자(1998) 「秀吉의 病死風聞과 朝日交渉 -조선침략 전쟁 중의 정보전달 문제의 일례로」 『일본역사연구』 8, p.27.

정당화 하였다. 도요토미 정권은 戰國 다이묘에 대한 私敵追討論旨, 또는 勅命講和 등 천황의 권한을 대행하는 논리로 전국을 통치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지진발생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히데요시는 천황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국정을 쥐고 있던 자신에게 그 과오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즉, 다른 무사정권과 달리 천황을 대신하여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는 지진발생이 천황의 薄德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豫徵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근대 시기 지진발생 후에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것처럼 도요토미 정권도 7월 15일 地震占을 쳤고 17일에는 지진기도의 論旨를 내렸다.<sup>37)</sup> 이때 나온 지진점의 占文을 살펴보면 ‘天文道の 奧義가 말하길 지진은 음이 성하고 양이 쇠퇴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內徑(불교의 전적)에서 말하기를 전쟁이 일어날 것을 경계해야 한다. 六甲에서 말하기를 讒言에 의해서 賢人이 물러가고 小人이 승진한다. 또 말하기를 人民이 병들고 재앙이 일어난다. 또 말하기를 大(騷)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다.<sup>38)</sup> 이 占文 내용 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라’는 내용과 ‘대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현재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조선과의 전쟁 상황을 암시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현인이 물러가고 소인이 승진한다’는 예언은 비록 히데츠구 사건이 종결은 되었지만 자신에게 또 다른 과급이 미칠 것을 우려했을 소산이 크다. 결국, 地震占의 예상을 적중시키기라도 하듯 2차 조선침략인 정유재란을 감행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地震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예측이 반드시 적중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지진발생이라는 국내혼란과 유언비어의 유행, 조선에서의 戰況이 소강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地震占을 역이용하여 전쟁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후 8월 9일 천황은 ‘改元沙汰在之, 地震大凶故也’라는 이유로 개원명을 내린다.<sup>39)</sup> 이것은 히데요시가 의도한 것으로 ‘文祿’이라는 연호를 ‘慶長’으로 改元

37) 지진이 발생하면 조정은 사원이나 신사에 지진기도의 論旨를 내림으로써 지진의 진정을 신불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17일 내린 윤지는 18일 醍醐寺의 座主였던 義演에게 전달되었다.

38) 『義演准后日記』慶長 윤 7월 20일 조.

함으로써 지진 발생 후 흩어진 민심과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모면하여 쇄신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sup>40)</sup> 우연의 일치인지 히데요시가 지진으로 인해 지연되어 왔던 명 책봉사와의 만남을 서두르면서, 만날 장소인 오사카성의 재정비 보수 명령을 내린 것도 改元 명을 내렸던 8월 9일과 일치한다.<sup>41)</sup> 이는 새로운 정치적인 수단으로 대내외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의 출발점이 아닌가 한다. 이후 9월 1일 히데요시는 明使를 오사카성에서 만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일명강화교섭에 대해 명 측이 강화조건을 위약했다고 트집 잡으면서 조선 재침략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보면 우선 지진발생 후에 히데요시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히데즈구사건의 여파와 조선에서의 戰況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 厭戰 분위기, 명과의 교섭을 통해서 최소한 조선 남부에서의 무역권이라도 얻으려 했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조선에서 일본군을 전부 철수하라는 명의 요구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동원해서 감행해 왔던 침략전쟁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내외의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차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돌파구로서 재침략을 감행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풍신정권후기에 발생한 수해·지진 피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며, 조선재침략이라는 대외관계에 전환점을 만드는 하나의 遠因으로 생각된다.

## 5.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일본역사학에서 ‘환경사’연구가 활발한 진행되고

39) 『義演准后日記』慶長 8월 9일 조.

40) 改元과 관련해서 繪旨는 8월에 내려졌지만 10월 27일에 가서야 儀式이 행해졌다. 이는 8~10월 사이에 또 다른 여진이 지속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개원식에는 9인의 杖儀衆(公家)이 천황을 방문하여 의식을 행하였다. 개원의 이유는 「天變地妖」이었고 「毛詩注疏曰 文王功德深厚 故福慶延長也」라는 의미에서 文祿→慶長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날도 대 지진과 大雨가 내렸다. 『義演准后日記』慶長 8월~10월 29일 조. 西山昭仁(1995) 「文祿5年の伏見地震直後の動静1—公家・寺社・朝廷を中心として」 『歴史地震』 11号、p.15.

41) 「毛利家文書」 910, 『大日本古文書』 家わけ 8-3.

있는 상황에서 ‘전쟁과 자연재해’, ‘전쟁과 환경’이라는 주제하에 도요토미 정권기에 발생한 자연재해(地震과 水害)가 조선침략(임진·정유재란)이라는 대외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히데요시가 전국통일을 달성할 시기만 해도 饑饉과 疫病은 중세후기의 대표적인 자연재해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근세 들어오면 지진과 噴火, 쓰나미라는 자연재해가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지진과 수해는 같은 자연재해의 범주 안에 속하면서도 지진이 被災體驗이 계승되기 어려운 재해이나 홍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의미에서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있지만 재해를 입은 사람이나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회복하려고 했었는가 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문제로 취급하였다.

그 결과 도요토미 초기 정권에 나타난 수해와 지진은 대내외적인 정치상황에 미친 직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홍수, 풍해 등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에 대응하면서 방지에 힘썼다. 지진의 경우에도 ‘天正地震’이라 불릴 정도의 대지진이 있었으나, 발생한 지역이 三河 지역과 東海·北陸·美濃·尾張·伊勢·近江 등지로 정치권력의 중심지였던 京都·大坂 지역과는 거리가 있었으므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도요토미 정권후기에 발생한 수해와 지진 피해는 초기와는 京都라는 정치 실험장의 심벌 또는 중앙 정치의 중심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재해가 미친 파장은 컸다. 따라서 그만큼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한층 더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지진이 발생하면 병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위정자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변수로서 지진발생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일으킨 조선 재침략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그 배경이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수해와 지진 발생이라는 자연재해가 ‘히데츠구사건’과 ‘히데요시의 병사풍문’, 교착상태에 빠진 ‘日明講和交渉의 파탄’이라는 대내외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인심의 동요와 반란의 조짐, 사회 혼란 등을 야기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히데요시는 총동원하여 감행해왔던 침략전쟁이 수포로 돌아가고, 국내의 정세마저도 불안한 가운데 자신의 정권

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돌파구로서 조선 재침략을 감행하였다고 본다.

재해는 인간 사회에 물질적인 손실을 안겨 줄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대외관계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된다. 즉, 도요토미 정권은 여러 차례 닥친 자연재해 가운데 특히 후시미 지진 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도 어떻게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최악’을 선택한 것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군사력과 군사조직이 미약했기 때문에 조선침략(정유재란)을 통해서 군사적인 우월성을 지속시키면서 자신의 정권을 강화,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岩沢愿彦(1984) 「秀吉の唐入りに関する文書」, 『豊臣政権の研究 戦国大名論集18』, 吉川弘文館.
- 三尾清一郎(1984) 「御掟・御掟追加をめぐって」, 尾藤正英先生還暦記念会編 『日本近世史論叢上』, 吉川弘文館.
- 西山昭仁(1995) 「文禄5年の伏見地震直後の動静1—公家・寺社・朝廷を中心として」, 『歴史地震』 11号.
- \_\_\_\_\_ (2006) 「寛文2年(1662)近江・若狭地震における京都での被害と震災対応」, 『京都歴史災害研究』 5.
- 仁木宏(1997) 「都市京都と秀吉」, 『日本史研究』 420.
- 高木徳郎(2002) 「日本中世史研究と環境史」, 『歴史評論』 630.
- 宮滝交二(2005) 「今なぜ環境史・災害史の視点か—日本古代史の立場から」, 『新しい歴史学のために』 259号, 京都 民科歴史部会.
- 佐野静代(2006) 「日本における環境史研究の展開とその課題—生業研究と景観研究を中心に」, 『史林』 89-5.
- 김문자(1998) 「秀吉의 病死風聞과 朝日交渉-조선침략 전쟁 중의 정보전달 문제의 일례로」, 『일본역사연구』 8.
- \_\_\_\_\_ (2006) 「히데요시는 일본국왕 임명을 진짜로 거부했는가」, 『한일관계 2천년-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근세2, 경인문화사.
- \_\_\_\_\_ (2007) 「豊臣政権 末期의 자연재해와 정치적 상황-文禄 5년(1596)의 지진발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99.
- 津野倫明(2009) 「壬辰倭乱の原因・目的に関する日本の諸学説」, 『日本学』 28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 이계황(2010)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한일관계연구논집 15, 경인문화사.
- 佐々木潤之介(2000) 『日本中世後期・近世初期における飢饉と戦争の研究』 科学研究費研究成果報告書.
- 峰岸純夫(2001) 『中世災害・戦乱の社会史』 吉川弘文館.
- 藤木久志(2001) 『饑餓と戦争の戦国を行く』 朝日選書.
- 藤田恒春(2003) 『豊臣秀次の研究』 文献出版.
- 繁田信一(2004) 『陰陽師の貴族社会』 吉川弘文館.
- 林淳(2005) 『近世陰陽道の研究』 吉川弘文館.
- 橋本政良編著(2005) 『環境歴史学の研究』 岩田書院.
- 北原糸子(2006) 『日本災害史』 吉川弘文館.
- 藤木久志編(2007) 『日本中世気象災害史年表稿-10~16世紀の風水、旱、虫害、凶作、饑饉、疫病の情報』、高志書院.
- 竹内理三編, 『増訂 大日本地震史料』
- 竹内理三編, 『続史料集成-多聞院日記』
- 『時慶卿記』
- 『梵舜日記』
- 『増補家閑忠日記』
- 『史料纂集 義演准后日記』 1-3(群書類従完成会).
- 『鹿苑日録』
- 『史料纂集 当代記』

- ❖ 투고일 : 2010. 6. 30.
- ❖ 심사일 : 2010. 7. 14.
- ❖ 심사완료일 : 2010. 8. 2.